

오피니언

김준의 갯살이



갯벌이 있어 추석이 풍요롭다

며칠 전부터 몸속에서 잡자가 있던 고향DNA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달력을 보니 곧 있으면 추석이다. 역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이 미각이었다. 여느 때 같은 맛있는 밥 한 끼를 후딱 해치울텐데 오늘따라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영 당기질 않는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다.

고 한다. 큰 섬에서 작은 섬으로 시집을 온 이유는 간단했다. 김양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김양식을 할 수 있는 어장을 가지고 있는 섬이 '돈섬'이었다. 지금처럼 양식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갯벌이 발달한 지주식 김양식을 할 수 있는 어장을 가지고 있는 섬이 부자섬이었던 것이다.

수여. 바지락 있는 데를 귀신처럼 안다니까. 그래서 따라나왔어. 시집와서 평생 한 것이 '빨리'인데, 척 보면 나치구멍인지, 바지락 구멍인지 모르겠는가."

안쓰러웠던지 바지락을 몇 개를 깨서 주었다. 바지락이 있는 곳을 찾는 방법이 달랐다. 할머니는 호미질을 하면서 주변 갯벌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반응이 오는 곳을 파면 어김없이 바지락이 있었다. 하지만 젊은 어머니는 눈앞에 있는 갯벌을 파는데만 정신이 없었다. 그 래도 늘 민손이었다.

사실 아내는 동네에서 음식솜씨 팬찮기로 소문나 있다. 특히 직접 담은 김치는 이젠 반찬가게를 열면 좋겠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그런데도 자꾸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맛이 허겁에 맴돌았다. 어머니가 손수 주물주물 만들어 주신 그 맛이 몸속에 숨어 있다 때가 되자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곧잘 '개도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일이 고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오죽했으면 "김농사를 하는 고장에 딸 보낸 심정이다"고 했을까. 그 래도 어쩌랴. 굶는 것보다 힘든 일을 택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갯벌이 드러났다. 주섬주섬 두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이 드신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한지 뒤뚱거리며 갯벌로 내려갔다. 젊은 어머니도 뒤따랐다. 그런데 갯벌에 내려서자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의 손놀림과 걸음걸음이 날렵했다. 오히려 사지가 멀쩡한 젊은 어머니가 한걸음 한걸음 옮길 때마다 찢뚫매신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것은 부모님이 그리워서인 것이다. 어머니의 손맛에 길들여진 음식도 그렇다. 무엇보다 길들여지는 것은 무섭지만 어머니 손맛은 다르다. 이게 로컬푸드고 슬로푸드 아니던가. 몇 시간을 달려 고작 하룻밤을 자고 오는 길이지만 어머니와 수십 년 동안 몸매 뺨 어머니의 손맛을 찾아 오는 것이다.

추석이면 섬마을 어머니들은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시장으로 가지 않고 갯벌로 달려간다. 완도 작은 섬 섬창에서 나이가 드신 할머니와 어머니 두 분을 만났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추석을 보름 앞두고 있었다. 할머니는 몸뚱에 혈렁한 꽃무늬 셔츠를 입고 채양이 긴 도자에 수건을 걸치셨다. 내년이 팔순이라 했다. 인근 큰 섬에서 열여섯에 시집을 왔다

그런데 할머니는 시댁이 육지와 가깝다는 말에 기대를 했다. 싫다고 거부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지금은 이 섬이나 그 섬이나 육지까지 나가는 시간은 오십분 백분도 안 걸린다. 할머니는 몸뚱에 혈렁한 꽃무늬 셔츠를 입고 채양이 긴 도자에 수건을 걸치셨다. 내년이 팔순이라 했다. 인근 큰 섬에서 열여섯에 시집을 왔다

할머니는 호미로 꼭꼭 갯벌을 건들더니 이내 씨알이 굵은 바지락을 줬다. 옆에서 부지런히 갯벌을 뒤집는 젊은 어머니가

그리고 일터로 가는 자식들의 손 바따리와 자동차 트렁크에는 송어건장, 새우젓, 굴, 바지락 등 갯것들로 가득하다.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한동안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명절은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성묘하고 내려오는 길에 별 바탕에 감사의 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기고

천연기념물 지정 '충효동 왕버들'



송관운

'충효동 왕버들'이 광주에서 나무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충효마을의 자랑이자 복구의 기쁨이며 광주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앞서 김제 봉남면, 청송 관동, 청도 각북면의 왕버들 나무를 각각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충효동 왕버들은 왕버들 나무로는 4번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중 충효동 왕버들은 세 그루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다 가장 오래된 연륜과 수려한 자태, 기품을 지니고 있어 이미 지정된 왕버들 천연기념물 중에서 단연 뛰어난 할 수 있다. 또 지난 400여 년간 마을 주민의 삶과 풍

속, 사상, 신앙 및 김덕령 의병장의 애화(哀話)가 이 나무에 아로새겨져 있어 특수성과 역사성, 학술적 가치 또한 크다고 하였다. 여기서 천연기념물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옛 독일 프로이센의 자연과학자이고 탐험관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 남작이 '신대륙의 열대지방여행'에서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천연기념물 지정은 18세기 초 유럽에서부터 시작돼 1827년에 프랑스가 천연기념물에 관한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1월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돼 천연기념물 보존과 지정이 본격화됐다. 지구 온난화로 도심 열섬현상이 가속화되는 지금 도시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나무의 효능만한 것도 없다고 한다. 나무가 없는 지구는 물이 없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다. 심산계곡

을 흐르는 옥류처럼 청신한 새소리도 나무가 없으면 사막의 물소리 마냥 들을 수가 없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샘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텍쥐페리는 말했으나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가 아름다운 것은 나무와 같은 생명을 품으려는 간절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갈나무 공원에 있는 일명 '세니럴 셔먼'이라고도 불리는 이갈나무다. 이 나무의 수령은 2300~2700년이며 높이는 83m, 나무둘레 31m에 달한다. 40m 높이에 있는 가지의 직경이 2m가 넘고 나무의 총 무게는 무려 2000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 나무로 중급 규모의 주택을 지을 경우 무려 40채나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어머니마한 크기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무게를 자랑하는

2000톤의 나무도 신기하지만 충효동 왕버들 나무처럼 400여 년이라는 시간의 스크린 속에서 민초들의 애환과 설화, 역사가 펼쳐지는 것 또한 큰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때문에 충효동 왕버들의 천연기념물 지정 효과는 다채롭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를 처음으로 보유하게 되고 인근의 풍부한 생태·문화환경의 중심부로 재정립돼 광주생태·문화관광의 미래에 핵심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공원과 시가(가사)문화권의 부정과 함께 광주 생태·문화관광 활성화를 함께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복구에서는 기존의 왕버들 음악회와 문화재청 주관인 '생생문화재 사업'과 연계해 왕버들 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축하하고 기리면서 인문·생태 프로젝트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충효동 왕버들, 이 소중한 자산을 주민과 구민, 그리고 시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와 그 속에 아로새겨진 역사의 바람일 것이다. <광주시 복구청장>

중고칼럼

복을 짓는 직업, 죄를 짓는 직업



주혜정

지난번에 TV를 보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유명 연예인 아들이 방학이 되어 부모님을 만나러 한국에 나와 아버지와 바다로 낚시를 가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듯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TV를 보는 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다. 오랜만에 만난 부자(父子)가 짧고 소중한 시간을 죄를 짓는 곳에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자녀를 교육하는 아버지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미물 곤충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생명을 살생하며, 다른 생명의 고통을 취미로 가르치니 말이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의 지식수준은 높아지고 고학력자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정작 기본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원불교 교조 소태산 대종사는 '사람의 직업 가운데에 복을 짓는 직업도 있고 죄를 짓는 직업도 있나니, 복을 짓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회에 이익이 미쳐 가며 나의 마음도 자연히 선하여지는 직업이요, 죄를 짓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회에 해독이 미쳐 가며 나의 마음도 자연히 악해지는 직업이다.'고 말씀하신다. 복을 짓는 직업은 자신도 이롭고 사회도 이롭게 하지만, 죄를 짓는 직업은 자신의 마음도 악해지고 사회에도 해독을 미치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님은 직업을 가지되 가림이 있어서 살생하는 직업이나 남의 정신 마취시키는 직업을 가지지 말며,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남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거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신다. 살생이나 남의 정신을 마취시키는 직업-술을 파는 직업이나 도박을 조장하는 직업 등은 다른 사람을 해(害)함으로써 내가 이(利)로워 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국은 그 해로움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위 직업을 가진다면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술로 인한 폐가망신이나 도박으로 인한 가정파탄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러한 가운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제 마을 밭에 묻혀 있던 수백억 원의 돈은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 피와 땀으로 모여진 재산이겠는가.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해 자신도 사회의 범법자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

의 마음 고통이 심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건전한 정신으로 건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밝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그러나 또한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부득이 살생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못 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직업에 임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그러한 직업에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하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좋은 일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나 못 생들에게 좋은 일이 되리라 생각해 본다. 뉘니뉘니 해도 직업 중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해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마음공부를 시키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 또한 그러한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쉬지 정성스럽게 맡은 일에 충실 한다면 조금씩 솟아나는 샘물이 우물 전체를 맑히듯 살기 좋은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자리(自利)이타(利他)로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자. <신창교당 교무>

우울증 환자 눈치 안보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스란히 나타난다. 조사내용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울증 지수였다. 2011년의 정신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130만명이 최근에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한다.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겪은 사람의 숫자도 거의 곱빼기나 늘었고 2010년 자살 사망자는 10만명당 31.2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하니 충격 그 자체다. 자살자도 문제지만 재작년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10만 8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숫자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게 그 정도이지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것 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우울증은 면담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증세도 있지만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수준의 중증 환자도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들의 70~80%는 우울증 환자라고 한다.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심할 정도라면 옆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울증 환자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서양사람들보다도 턱없이 적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울증을 마치 미친 사람, 싸이코, 정신이상자 같은 눈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일본은 직장 정기검진 항목에 우울증 등 정신 질환 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직장, 학교, 군대에서 혈압 검사처럼 우울증 검사를 필수로 받게 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다. 국가가 교통사고나 암 환자를 줄이기 위해 혈관 노력이 몇 분의 1이라도 우울증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금 같은 자살자는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심희수·광주시 복구 대추동

의 마음 고통이 심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건전한 정신으로 건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밝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그러나 또한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부득이 살생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못 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직업에 임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그러한 직업에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하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좋은 일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나 못 생들에게 좋은 일이 되리라 생각해 본다. 뉘니뉘니 해도 직업 중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해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마음공부를 시키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 또한 그러한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쉬지 정성스럽게 맡은 일에 충실 한다면 조금씩 솟아나는 샘물이 우물 전체를 맑히듯 살기 좋은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자리(自利)이타(利他)로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자. <신창교당 교무>

시설

태풍피해 복구·지원 언제까지 미룰 건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코 앞에 다가 왔지만 전남지역 농어민들의 마음은 실란한다. 잇단 태풍으로 배 백수·염해는 물론 양식장시설 파손 등 큰 피해를 봤지만 복구와 지원이 늦어져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릴레이 태풍으로 도내 배 재배면적 17만3283ha 가운데 5만8478ha(34%)가 백수 피해를 입었다. 간척지 논은 경우 상당수가 염해 피해를 당했지만 정확한 통계까지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이들 배를 사료로라도 쓰기 위해 사료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t당 4만 원씩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지만 피해농가의 1%만 희망할 뿐이다. 농민들이 배 이상한 알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낙과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를 본 과수농가와 양식 어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과수 농가들은 나뭇가지가 찢기고, '불시계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년 농사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게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이 신속기에 접어들어 버까지 갈아엎으며 항의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양식 어민들도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곳곳에 파손된 양식장 시설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복구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군·관·민을 총동원해서라도 서둘러 복구를 끝내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속히 이뤄지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도 상황 조정하는 등 피해 보상이 가능한 재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추석인데도 여전히 썰렁한 사회복지시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즐겁기보다 오히려 상실감이 더 크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끊기고, 사회복지공동모금마저 줄어든 탓이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모금된 추석 특별성금은 모두 1억1800만 원으로, 지난해 2억13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지난해 2억4000만 원이 모였으나 이번에는 1억18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줄었다. 모금액은 저소득층 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에 차례상 비용으로 지원되는 만큼 추석 분위기는 썰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쓸쓸한 추석 명절을 맞게 되는 것은 소규모 시설만이 아니다. 웬만한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들도 과거 명절 때면 독지가의 후원금이나 물품 기부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올 추석은 온정의 손길

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람들은 즐겁기보다 오히려 상실감이 더 크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끊기고, 사회복지공동모금마저 줄어든 탓이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모금된 추석 특별성금은 모두 1억1800만 원으로, 지난해 2억13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지난해 2억4000만 원이 모였으나 이번에는 1억18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줄었다. 모금액은 저소득층 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에 차례상 비용으로 지원되는 만큼 추석 분위기는 썰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쓸쓸한 추석 명절을 맞게 되는 것은 소규모 시설만이 아니다. 웬만한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들도 과거 명절 때면 독지가의 후원금이나 물품 기부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올 추석은 온정의 손길

無等鼓

한평군 해변면 삼도마을에 들어서면 한옥으로 지어진 마을회관이 방문객을 맞는다. 리조트로 말하면 '웰컴센터'인 셈인데 마을의 특색있는 한옥과 집 주인의 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안내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시나 문학 공부를 하는 공간도 된다. 휴가철이나 주말이면 전국에서 한옥 민박을 체험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100년이 넘는 한옥에서는 우리 전통한옥의 멋을 느낄 수 있고 새로 지은 한옥에선 나무향이 주는 한옥의 매력과 현대식 편의시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수년동안 방치됐던 '영양제'라는 제과는 인천에서 온 젊은 여성이 전통차집으로 운영하면서 다도체함을 하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담양군 대덕면 무암마을도 한옥이 아름다운 곳이다. 마을 주민들이 일일이 쌓아놓은 돌담길을 따라 멋진 한옥들이 줄지어 서있다. 마을회관과 화장실까지 한옥으로 꾸며져 있는데 지난 4월에는 이

곳에서 한옥체험을 한 외국 경찰서장 17명이 연신 '원더풀'을 쏟아냈다고 한다. 두 마을의 공통점은 '행복마을'이라는 것이다. 행복마을은 전남도가 주민들의 주거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한옥을 지을 경우 지정하는 마을로, 현재 전남에는 106개 마을이 있다. 835채의 한옥이 이미 지어졌고 677채가 지어질 예정이다. 37개 마을에서는 한옥 민박으로 올해 8월말까지 7억 43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주민들의 주머니까지 채워주고 있다. 전남의 행복마을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2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지역 특화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미래 농어촌 마을의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면서 서울 북촌, 전주 한옥마을과 차별화된 한옥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마련했다. 광주시도 조심스럽게 한옥마을을 추진한다고 한다.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늦은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 광주시민의 특색있는 한옥마을이 탄생하길 바란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행복마을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Gwangju)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